

“접종증명 어떻게 하나요?”…손님도 직원도 혼란

대형마트 방역패스 시행 첫날

노년층 인증 못해 입구 ‘복적’
“복잡해” 직원들에 도움 요청
내주 미접종자 출입시 과태료
“인력증원 등 개선 대책 시급”

“간단하게 장 보러 온 건데, 백신 접종 증명한다고 출입구 앞에서 10분을 헤맸어요.”

10일 오전 10시께 서구 관천동의 한 대형마트. 장을 보러 마트를 찾은 백 모씨(66·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 앞에서 10여 분간 핸드폰과 사투를 벌였다. 백 씨는 출입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입장객들이 몰리며 10분 넘게 입장하지 못했다. 이날 마트 출입구는 백 씨와 같이 백신 접종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핸드폰 조작이 익숙지 않은 60대 이상 노년층을 중심으로 혼선이 가중됐다. 백 씨는 “평소에 무리 없이 다녔던 대형마트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몰리는데 직원은 두 명만 서있어서 도움받는 데 한참 걸렸다”며 “우리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 조작이 미숙한데,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을 늘리거나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곳곳에서는 출입 인증을 했는데 왜 입장을 못하

게 하나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평소 QR 코드 발급이 어렵고 번거로워 수기 명부나 안심폴로 입장했다는 박 모씨(68·남)는 “3차까지 백신 접종 완료했는데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마트 장을 보기 위해 증명서를 떼와야 하는 거냐”며 안성을 높였다. 박 씨는 “안심폴 등 출입 관리도 겨우 적응했는데 접종 증명까지 하려니 너무 복잡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마트 측은 방역 패스 안내문을 부착하고 접종 증명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출입을 관리하는 직원을 둘러싸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입구가 막히자 마트 측은 결국 방역패스 시행 안내에 중점을 두고 고객들을 입장시켰다. 출입을 관리하던 직원은 접종 증명을 해매는 고객에게 인증 방법을 알려주며 “계도기간이라 오늘은 입장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대형마트에 방역패스가 시행된다는 점을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많다”며 “우선은 고객들에게 접종 증명을 하지 못하면 다음주부터는 입장이 안된다고 안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11시께 광주지역 백화점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대형마트에 비해 고객 연령층이 낮은 백화점은 비교적 원활하게 출입이 진행됐다.

백화점을 방문한 이 모씨(34·여)는 “이제는 입구에 들어서기 전부터 QR코드를 켜기 시작한다”며 “접종 증명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행 첫 날인 10일 광주시 북구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백신 접종여부를 확인받고 있다. /김생훈 기자

이어 “다만 부모님들은 많이 어려워하셔서 방역패스가 적용된 곳은 피하려고 하신다”며 “타 지역은 안심폴에 접종 증명 기능이 추가됐는데, 어르신들을 위해 이런 기능이 전국적으로 빨리 적용이 돼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 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화됐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기 위해 QR코드,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쿠브(COOV) 등으로 백신 접종을 인증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는 위반 횟수

별로 과태료 부과 혹은 행정처분 등이 적용된다.

광주시세계 관계자는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도기간 동안은 직원들이 돌아가며 출입 관리 근무를 서도록 했다”며 “계도기간을 거쳐 인력 증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광주·전남 코로나 연일 최고치 경신

학교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의무화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156명이 신규 확진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남에서는 유흥시설, 시장 등지에서 산발적 감염으로 64명이 확진됐다. 지역별로는 ▲목포 24명 ▲무안 11명 ▲나주 10명 ▲화순 6명 ▲여수·해남 3명 ▲순천·고흥 2명 ▲광양·곡성·장성 1명

등이다.

광주시는 최근 폭발적인 확산세 차단을 위해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PCR 검사를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재활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PCR 진단검사를 주 3회로 확대 시행한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은 주 2회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방학 중 돌봄·방과후수업을

운영하는 학교의 종사자들에 대한 PCR 진단검사는 주 1회 의무화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종사자 중 백신 미접종자들은 주 1회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다가오는 설까지 ‘전 도민 잠시멈춤 운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도 발생할 경우 선제검사가 의무화된다.

이용섭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잠복기가 평균 3일 정도로 매우 짧다”면서 “방역조치의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PCR 진단검사 횟수를 늘릴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현·오선우 기자

이용섭 “금타 부지 아파트 위주 개발 안돼”

〈속보〉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부지 계약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납부하면서 합평이전이 확정된 가운데(본보 10일자 1면)이용섭 광주시장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 활용 방안이 핵심인데, 아파트 위주 개발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0일 기자단 차담회를 통해 “금호타이어 이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를 위해서 공장 용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협의나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전



략적 상업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 시장은 “지나해에도 언급했듯, 아파트나 주상복합 위주 개발은 안된다”면서 “KTX선도지기로 지정된 취지와 궤를 같이 하고 교통과 물류 허브, 상업·업무·주거 융복합지역으로 개발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선우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 스크린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플레이블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 스크린 11실과 부대시설

1F_CAFE & LOUNGE

Fun it, us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

